

# 통합특별시 출범 준비 속도...조직·인사·재정 등 추진

### 광주시·전남도, 협의체 발족...과제·제도개선 등 대응 정책 방향 정립·쟁점 해결기능 수행...성과창출 노력

오는 7월 전남광주특별시 출범을 앞두고 광주시와 전남도의 조직·인사·재정·법제·전산시스템 등 통합작업을 추진할 정책협의체가 본격 가동된다.

광주시와 전남도는 권한대행을 중심으로 핵심 국장급 실무진으로 이뤄진 광주·전남 정책협의체를 지난 24일 발족하고, 제1차 회의를 가졌다.

정책협의체는 양 시도 권한대행과 기획조정실장, 자행정국장, 행정통합실장, 무준비단장 등 총 8명으로 구성된 실무 조정·결정 기구로, 행정통합의 기본 방향 설정, 고위급 소통, 분야별 통합현안의 신속한 의사결정이 필요하다는 공감대 아래 실무자들로 사전 협의, 출발하게 됐다.

양 시도는 정책협의체를 통해 부서간 이견 조율이 필요한 통합과제에 대한 공식 협의기구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또, 실질적인 행정통합 추진을 위한 정부 재정 지원책 마련과 관련 특별법 등 제도 개선 사안에도 공동 대처하기로 뜻을 모았다.

이날 발족과 동시에 광주전남공동혁신도시(나주) 복합혁신센터에서 열린 제1차 회의에서는 협의체 운영안, 주요 통합과제 및 공동 추진안을 논의했다.

정책협의체 운영은 정례 회의와 수시 회의를 병행하되 긴급한 현안에 대해서는 시·공간의 제약 없이 격식 없는 논의를 거쳐 신속한 의사결정을 지원할 방침이다.

양 시도는 특히 조직·인사·재정·법제·전산시스템 등 행정 인프라 통합과 특별법 후속 조치, 중장기 발전계획, 공인·공부 정비 등을 포함한 '핵심 통합과제'를 우선 논의했다.

이에 따라 실무부서 간 긴밀한 협의를 통해 구체적인 로드맵을 확정하고, 통합방안 마련을 위한 행정 절차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고광안 광주시장 권한대행은 "바로 지금이 행정통합을 위한 중요한 골든타임"이라며 "정책협의체 등을 중심으로 통합 준비를 체계적으로 추진해 출범 과정에 서 시민들께 미칠 혼선을 최소화하도록



고광안 광주시장 권한대행과 황기연 전남도지사 권한대행이 지난 24일 나주혁신도시 복합혁신센터에서 열린 광주·전남 정책협의체 제1차 회의에서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광주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황기연 전남도지사 권한대행은 "전남과 광주의 행정통합은 지역의 미래 경쟁력을 높이는 중요한 전환점"이라며 "출범

까지 90여일 남은 만큼 주요 통합과제를 신속히 정리하고, 실무부서 간 긴밀한 협력과 체계적인 관리로 완성도 높은 통합특별시 출범을 이루겠다"고 말

했다. 광주시와 전남도는 주요 통합과제 외에도 전 분야에 걸친 통합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긴밀한 협력을 통해 시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행정통합 성과 창출에 노력할 계획이다.

양동민 기자 yang00@gwangnam.co.kr  
이현규 기자 gnnews1@gwangnam.co.kr

## 사회연대경제부터 산업·돌봄까지 '상생 모델' 살펴

### 윤호중 행안부 장관, 광주·전남 현장 점검

### 로컬푸드·빛그린산단 등 찾아 핵심 성과 공유 도 "지방재정 한계"...행정통합비용 500억 요청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25일 광주와 전남을 잇따라 방문해 사회연대경제와 행정통합 준비 현황을 점검하고, 지역 상생 모델과 제도 기반을 동시에 살폈다. 현장에서는 통합특별시 출범을 앞둔 전남도의 재정 지원 요구도 공식 제기했다.

윤 장관은 이날 광주 관공구 광주사회적경제지원센터를 찾아 사회연대경제 중간 지원조직 운영 사례를 확인하고 현장 간담회를 열었다. 2016년 개소한 이 센터는 기업 발굴과 육성, 컨설팅, 판로 지원, 네트워킹 구축 등 지역 사회연대경제 생태계를

뒷받침해온 핵심 조직으로 평가된다. 간담회에는 윤 장관과 고광안 광주시장 권한대행, 사회적기업·마을기업 관계자 등 16명이 참석해 광주 사회연대경제 현황과 지원센터 운영 성과를 공유했다. 특히 2025년 행정안전부 최우수 마을기업으로 선정된 '한누리 꽃담' 사례가 소개됐다. 이 단체는 결혼이주여성 공동육아 모임에서 출발해 화해공예와 다문화 음식점 운영으로 사업을 확장하며 일자리 창출과 인식 개선을 이끌어왔다. 무료 식사 제공, 독거노인 정서 지원 등 공헌 활동도 이어가며

지역사회 기반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고 있다.

윤 장관은 "광주·전남이 통합 이후에도 연대와 협력을 통해 강점을 결합하고, 그 성과가 사회연대경제 발전으로 이어지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고광안 권한대행도 "현장 중심 정책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했다.

이어 전남·광주 통합특별시 출범 준비 현황으로 이동한 윤 장관은 광주일가정양립지원본부에서 열린 합동 워크숍에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황기연 전남도지사 권한대행은 행정통합 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 부담을 이유로 정부의 재정 지원 필요성을 공식 건의했다.

전남도는 통합 과정에서 행정 시스템 통합과 조직 개편, 주민 서비스 조정 등에 상당한 비용이 발생하는 만큼 지방재정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정부 추경에 "행정통합 비용 500억원" 반영을

요청했다. 국고 지원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행정 공백과 민원 혼선으로 통합 추진 동력이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함께 전달했다.

윤 장관은 워크숍에 앞서 광주 북구 장성로컬푸드 첨단직매장과 함평 빛그린국가산업단지, 영광 통합돌봄 현장도 잇따라 점검했다. 장성 로컬푸드 직매장에서는 "광주와 전남이 하나의 생활권으로 작동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라며 광역 협력 모델로 평가했고, 빛그린산단에서는 "행정통합이 지향해야 할 산업 생태계"라고 강조했다.

영광에서는 오는 27일 시행되는 통합돌봄 서비스 준비 상황을 점검하고 현장 의견을 청취했다. 전남도는 전담 인력 464명 지원과 조례 제정, 의료·복지 협력체계 구축을 통해 제도 시행 기반을 마련한 상태다.

양동민 기자 yang00@gwangnam.co.kr  
이현규 기자 gnnews1@gwangnam.co.kr

## 광주·전남 국회의원 대부분 재산신고액 늘어

### 18명 중 16명... '1억 이상 5억 미만' 가장 많아

### 전체 국회의원 평균재산 28.8억 넘는 의원 6명

지속적인 경기 침체 속에서도 광주·전남지역 국회의원 대부분의 재산 신고액이 지난 2025년보다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공직자윤리위원회(위원장 김남주)는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국회 소속 재산공개대상자인 국회의원 287인과 국회 공직자 43인에 대한 정기재산변동사항 신고 내역을 26일 국회공보 및 공직윤리시스템을 통해 공개했다.

2026년 재산신고액을 살펴보면 국회의원(287인)의 경우 신고재산 총액이 500억원 이상인 의원은 전년도 2인(안철수, 박덕홍 의원)과 같고, 이들 2인을 제외한 285인의 2026년도 평균 신고재산액은 28억8730만원이었다.

광주·전남지역 국회의원 가운데 신고 재산액이 전체 국회의원의 평균보다 많은 의원은 모두 6명이었다.

양부남 의원(88억3893만원, 광주 서구 을), 안도걸 의원(44억1844만원, 광주 동구남구을), 주철현 의원(37억288만원, 여수시을), 박지원 의원(33억6588만원, 목포), 이개호 의원(32억5245만원, 담양·함평·영광·장성), 박균택 의원(29억7373만원, 광주 광산구갑)이다.

신고재산액이 전체 국회의원 평균 이하인 의원은 모두 12명이다.

신고재산액 규모별로 보면 '10억원 이상 20억원 미만'이 7명(조인철, 민형배, 문규주, 서삼석, 김원익, 정진욱, 조계원 의원 순)이 가장 많았다.

이어 '5억 이상 10억 미만'이 1명(전진속 의원), '5억 미만'이 4명(김문수, 권항업, 신정훈, 정준호 의원 순)이었다.

전체 국회의원 가운데 재산 신고액이 증가한 국회의원은 전체의 88.5%인 254명이나 됐다. 광주·전남지역 국회의원 18명 중에도 재산 신고액이 증가한 국회의원은 모두 16명(88.8%)이었다.

증가 규모별로 보면 '1억 원 이상 5억원 미만'이 11명(박균택, 조계원, 박지원, 양부남, 전진속, 문규주, 주철현, 김원익, 민형배, 정진욱, 이개호 의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5000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이 4명(김문수, 권항업, 정준호, 서삼석 의원)이었고, '5억원 이상 10억원 미만'은 1명(안도걸)이었다.

반면 신정훈 의원(나주·화순)과 조인철 의원(광주 서구갑)은 재산 신고액이 줄었다.

신 의원은 지난해 신고액 3억3265만원에서 2억9983만원으로 3282만원이 감소했고, 조 의원은 지난해 20억315만원에서 19억8626만원으로 1689만원이 줄었다.

이성모 기자 solee235@gwangnam.co.kr

## 전남도, 여행사 300곳에 상품개발비 지원

### 공항 폐쇄 장기화 대응 6억원 투입...온라인 홍보 등

전남도가 무안국제공항 장기 폐쇄 여파로 침체된 지역 여행업계 회복을 위해 체류형 관광상품 개발 지원에 나선다.

전남도는 25일 도내 300여 여행사를 대상으로 총 6억원 규모의 여행상품 개발비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업체당 약 200만원을 지원해 지역 관광자원을 활용한 체류형 상품 기획을 유도하고, 관광객 체류시간 확대와 소비 증가로 이어지는 구조를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개발된 상품은 '전남관광플랫폼' 등 온라인 채널을 통해 홍보된다. 이를 통해 개별 여행사 단위의 상품 판매를 넘어 도 차원의 통합 마케팅 효과를 끌어내겠다는 전략이다.

사업은 3월 이후 3주간 공모 절차를 거쳐 4월 중 지원 대상 여행사를 선정하고, 이후 사업비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전남도는 그동안 공항 폐쇄 이후 위축된 관광 수요를 회복하기 위해 긴급 지원을

이여왔다. 사고 직후 홍보마케팅비 20억원과 여행객 모집 인센티브 8억원을 투입했고, 관광진흥기금 거치기간을 2년 연장하는 한편 경영안정자금도 확대했다.

올해 들어서도 한국공항공사와 협약을 맺고 교통지원금 1억원을 지원했으며, 이번 사업과 별도로 내·외국인 대상 특화상품 개발, 섬 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여수세계섬박람회 연계 지원 등 총 29억원 규모의 추가 지원도 계획하고 있다.

아울러 내국인 관광객 유치 여행사와 외래 관광객 유치를 위한 협력 여행사 30곳을 선정해 마케팅비와 인센티브를 지원할 방침이다.

최영주 전남도 관광체육국장은 "여행업계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원을 이어가고 있다"며 "무안국제공항 정상화와 연계해 지역 관광시장 회복 속도를 높여겠다"고 말했다.

이현규 기자 gnnews1@gwangnam.co.kr

## 민형배·주철현 순천서 기자회견...연대 움직임

### '산업·의대·반도체' 입장 표명...경선 판도 변화 조짐

더불어민주당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경선에 나선 민형배·주철현 후보가 전남 동부권 주요 현안 해결에 공동 대응에 나선 시기로 했다.

25일 지역 정치권에 따르면 민 후보와 주 후보는 26일 오전 11시 순천시의회 소회의실에서 '동부권 미래비전을 위한 공동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다.

민 후보는 당초 이날 광주에서 자체 정책 기자회견을 진행할 예정이었으나, 갑작스럽게 주 후보와의 일정이 추진되면서 광주 일정을 조정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사(주 후보)와 청와대 근무(민 후보) 시절부터 인연을 맺어 온 두 후보는 평소 자신들이 원조 '친명(친 이재명 대동령)'임을 자처하며 친분을 과시해와 경선 기간 단일화나 연대 가능성이 예측돼 왔다.

민 후보와 주 후보가 동부권 현안을 중심으로 뜻을 모으면서 경선 연대를 시작해 광주와 전남 동부를 아우르는 세를 형성하



민형배 주철현

려는 흐름으로 분석된다. 이들은 공동 기자회견을 통해 석유화학·철강 등 산업, 의과대학 설립, 반도체 산단 유치 등 3가지 현안에 대해 공동의 의견을 정리한 뒤 발표할 예정이다.

여기에 김영록 후보가 전남 경선 중도 사퇴한 이병훈 전 민주당 호남발전특위 수석부위원장을 총괄상임선대위원장으로 영입하고, 강기정·신정훈 후보가 단일화 추진 기미를 보이는 등 경선판도에 변화 조짐이 일고 있다.

이현규 기자 gnnews1@gwangnam.co.kr

## ▶1면 '광주북구청장'서 계속

유일한 진보당 소속 김주업 후보는 진보당 지지층으로부터 41.1%의 지지를 기록했다. 정당성 후보는 23.3%, 조호권 후보는 10.8%, 신수정·정다은 후보는 8.3%를 기록했다.

북구청장 선거는 문인 현 북구청장이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당초 광주시장 선거에 출마를 고심했던 문 청장이었지만, 광주·전남 행정통합 이슈 속에 특별 시장 및 3선 도전에 나서지 않기로 하면 서 그와 지지층의 표심이 선거 판도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높다.

아울러 후보들 사이의 합종연횡, 지지선인 등도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번 조사는 광남일보 의뢰로 여론조사전문기관 코리아정보리서치가 지난 20~21일 광주 북구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성인 남녀 504명(통신사 제공)을 대상으로 100%를 대상으로 자동응답(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진행했다. 통계표본은 2026년 2월 말 기준 국가 주민등록인구통계에 따라 성·연령·지역별 가중치를 부여(셀가중)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4.4%p, 응답률은 6.2%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www.nesdc.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